

高麗圖經에 나타난 徐兢의 韓國史體系

韓 永 愚*

- 一. 對高麗觀
 - 二. 《高麗圖經》의 韓國史體系와 그 오류
- | | |
|-----------------|---------------------|
| (1) 箕子朝鮮 | (4) 渤海에 관한 서술 |
| (2) 衛滿朝鮮에 관한 서술 | (5) 高麗건국에 관한 서술 |
| (3) 高句麗에 관한 서술 | (6) 高麗國王의 世系에 관한 서술 |
- 餘 言

一. 對高麗觀

《고려도경》에서 우리나라 역사체계와 관련되는 조항은 이 책의 서론부분에 해당하는 建國과 始封이다. 여기에서는 箕子朝鮮에서부터 高麗가 건국될 때까지의 역사를 자기나름으로 體系化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 世次·王氏·世系·高麗國王楷에 이르는 4條는 高麗太祖에서부터 仁宗에 이르기까지의 고려의 역대 王名과 中國과의 封爵關係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부분은 그 앞의 建國 및 始封과 연결하여 한국사의 전체계를 그 나름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체계와 관련되는 言及이 보이는 조항으로는 封境·同文·正朔·儒學 등이 있다.

徐兢의 韓國觀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留意할 것은, 그는 우리나라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용어로서 「高麗」라는 칭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보이는 「高麗」라는 용어는 때로는 고려왕조를 가리킬 경우도 있고, 때로는 高句麗를 가리킬 때도 있으며, 또 때로는 한국사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책에 보이는 「고려」라는 칭호를 일률적으로 「고려왕조」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먼저 지적해두고자 한다.

다음에, 작자 徐兢의 對韓觀은 시종일관 우리나라가 中國의 諸侯國家였다는 대전제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전역사를 中國과의 事大封爵關係라는 측면에서만 서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項目의 이름을 〈始封〉이라든지 〈封境〉이라고 붙인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史記》이래로 中國의

* 서울대학교 人文大學 副教授

正史에서 우리나라를 〈列傳〉 속의 일부로 서술해온 전통과도 관련되는 것이며, 더우기 《高麗圖經》이 宋나라의 使臣으로서 그들의 天子(徽宗)에게 바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한층 事大封爵의 名分을 확실히 강조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徐兢이 본 對韓國觀을 가장 상징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것은 〈建國〉條에 보이는 다음의 句節이다.

夷狄君長類 以詐力自尊 殊名詭號 單于可汗 無足稱者 獨高麗自箕子之封 以德取侯 後世稍衰 他姓亦用漢爵 代展其位 上有常尊 下有等衰 故襲國傳也 頗可記錄

즉 여기서는 夷狄와 高麗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바, 夷狄君長은 「詐力自尊」하여 「殊名詭號」를 쓰고 있는데 반하여, 高麗는 箕子이후로 「以德取侯」하여 대대로 中國의 官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高麗(즉 우리나라)는 다른 夷狄국가보다는 훨씬 德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그 德이라 하는 것은 다름아닌 中國의 諸侯로서 事大·正朔 관계를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高麗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칭찬의 근거는 中華主義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徐兢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찍이 箕子조선 이후부터 성실한 諸侯國家로 내려왔을 뿐 아니라 현재의 高麗王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北方의 契丹의 年號를 쓰고 있었지만, 北方族에게 정신적으로 굴복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러한 고려의 文化 전통과 歷史 전통에 비추어 볼 때, 武力보다는 仁과 德으로써 고려를 계속 綏懷(편안하게 하여 따르게 함)하여 諸侯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¹⁾ 서긍의 對高麗觀은 이와같이 기본적으로 樂觀的이고 肯定的이다.

그런데 서긍이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본 데에는 단순히 政治的으로 中國의 封爵을 받아들인 諸侯국가라는 사실에만 근거를 둔 것은 아니었다. 夷狄국가이면서도 文化的으로 中國과 동일한 점이 많고, 또 그 文化水準이 높다는 점에서도 서긍은 고려에 대하여 비교적 큰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서긍은 東夷族의 天性이 어질고(仁), 「君子不死之國」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나라문화를 이해해 들어가고 있다.⁽²⁾ 中國 주변의 諸民族中 東夷族을 특별히 文化的으로 우수한 나라로 인식해온 것은 이미 《漢書》나 《後漢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徐兢이 비로소 그러한 인식을 처음 갖게 된 것은 아니다. 箕子が 조선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東夷族은 「仁者의 나라」, 「君子의 나라」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孔子가 뗏목을 타고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中國人들은 일찍부터 생각해 왔다.

그런데 그러한 東夷族 본연의 文化 전통이 箕子의 教化나 漢·唐·宋의 文物傳授를 매개로 하여 더욱 발전되어 仁義와 義理를 가진 文化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왔다. 徐兢의 高麗觀은

(1) 《高麗圖經》卷 40 正朔條 참고.

(2) 同上 卷 40 儒學條

바로 그러한 中國人의 전통적 東夷觀을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서긍은 <儒學>이라는 別項을 설정하여 箕子 이래로 우리나라가 中國의 漢·唐·宋 文化를 수입하여 중국과 대등한 文物의 아름다움을 갖추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서긍이 특히 우리나라 文化에 대하여 敬意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① 漢字사용이 넓고 정확하다는 것, ② 樂律과 度量衡이 중국과 같다는 것, ③ 中國의 正朔을 충실히 사용해 왔다는 것, ④ 教育熱이 매우 높다는 것, ⑤ 書籍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文物의 아름다움이 上國(中國)과 비슷하다」고 하고, 또 「燕나라나 韓나라의 左僻에 있으면서도 齊나라나 魯나라의 氣韻이 있다」고도 하면서 문화수준의 높음을 칭송하고 있다.⁽³⁾

물론 고려문화수준의 높음이 모두 中國天子의 教化에 힘입었다는 것을 그는 빠뜨리지 않는다. 다음의 句節은 그가 얼마나 中國中心의 세계관에서 고려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諸侯가 功을 이룩하는 것은 天子의 威靈을 빈 것이고, 제후가 德을 드러내는 것은 실은 天子의 教化를 따른 것이다. 高麗人은 중국에 대해서는 바다 한 구석의 侯伯의 나라일 뿐이다. 이제 그들의 文物의 풍성함(富)이 이와 같은 대체로 좋은 感化의 소치이니, 또한 위대하지 않은가. 비유하자면, 日·月을 비롯한 三辰(日·月·星)은 元氣를 빌어서 列을 이룩하나, 그것들이 빛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늘의 밝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草木을 비롯한 온갖 보물은 元化를 받아서 꽃을 피우나, 그들 꽃이 아름답게 피고 지고 하는 것은 땅의 文彩로 되는 것이다.⁽⁴⁾

결국 서긍의 논리는 高麗文化를 高麗人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中國人의 自己中心의 편견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논리가 반드시 우리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가 전통적인 中國人의 對韓觀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다른 夷狄이나 蠻貊과 뚜렷이 구별되는 文化民族으로 인식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물론 徐兢의 對韓觀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려문화가 가진 독자적 특징이나 고유한 풍습이 보일 때에는 이를 夷狄풍속의 잔재로 멸시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또한 中國人의 고질적인 우월감의 소치로 본다면, 徐兢 한 사람의 편견이라고 탓할 것은 못된다.

二. 《高麗圖經》의 韓國史體系와 그 오류

《高麗圖經》의 <始封>條에는 箕子로부터 高麗에 이르기까지의 이천여 년의 한국사를 서술

(3) 同上

(4) 同上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歷史라기보다는 文字 그대로 封爵관계의 始末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封爵관계를 王朝홍망의 순서에 따라 기술했기 때문에, 조잡하나마 한국사체계의 큰 줄기를 찾아볼 수 있다.

〈始封〉條에 기술된 國家홍망의 순서는 대략 箕子朝鮮→衛滿朝鮮→四郡→高句麗→渤海→高麗의 單一體系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高句麗는 扶餘에서 出自된 것으로 보고, 또 四郡에 앞서서 高句麗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위 圖式처럼 단순하지는 않다.

여기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箕子朝鮮에 앞서서 檀君朝鮮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中國正史의 어느 것에도 檀君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中國正史에 누누히 기록되어 온 三國·新羅·百濟를 누락시켰다는 사실이다. 作者 徐兢이 新羅와 百濟의 實在를 모르고 있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封境〉條에는 新羅와 百濟를 言及하고 있는 귀절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新羅와 百濟의 實在를 알면서도 이를 〈始封〉條에서 뺀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체계에서 두 나라를 빼도 좋다는 그 나름의 이유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바귀 말하면, 高麗王朝는 高句麗의 후계국가로 보고, 고구려·발해만을 三國을 대표하는 국가로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中國人이 우리나라 역사를 單一體系로 구성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이러한 單一體系는 徐兢이 역사상 최초로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司馬遷(漢代)의 《史記》 이래로 《漢書》(後漢 班固)·《後漢書》(六朝의 范曄)·《唐書》(五代 晉의 劉昫) 등 中國 역대의 正史가 東夷列傳을 설정하여, 그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해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東夷 여러 種族을 종족단위로 하여 단편적인 역사를 그린 것이지, 어느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체계적인 國家史는 아니었다.

예컨대 中國正史의 東夷列傳중에는 朝鮮·扶餘·高句麗·挹婁·沃沮·百濟·新羅·濊·韓·渤海·倭·靺鞨·契丹 등이 병렬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이들 諸族이 어떻게 縱的인 연결을 가지고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體系있게 서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高麗 이전까지는 統一王朝가 세워진 경우가 없어서, 統一王朝를 기준으로 한 正統계승관계를 포착하기가 어려웠던 사정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高麗王朝는 역사상 최초의 統一王朝인 까닭에, 이에 따라 中國人들도 高麗를 기준으로 하여 正統承襲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徐兢의 시도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된다.

둘째로, 徐兢이 시도한 歷史體系에서 新羅·百濟가 누락되고 高句麗·渤海가 單一體系로 부각되었다는 것은, 고려의 역사적 정통성을 高句麗 및 渤海와 연계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徐兢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宋나라 朝廷이 그와 같은 正統承襲의 文脈에서 고려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 이를 뒤집

어서 생각하면, 당시 高麗측이 스스로의 역사적 正統性을 그와 같이 意識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이제, 徐兢이 箕子朝鮮에서 高麗에 이르는 각 王朝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箕子朝鮮

먼저 〈始封〉條에서는 맨처음에 箕子朝鮮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高麗之先 蓋周武王封箕子胥餘於朝鮮 寔子姓也……自子姓有國八百餘年

여기에서는 마치 高麗의 조상이 箕子인 것처럼 쓰고, 箕子朝鮮의 歷年이 800여년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의 시초이자 우리 민족의 시조를 箕子인 것처럼 생각하는 표현은 〈建國〉條에도 보이는 바, 「高麗 自箕子之封 以德取侯」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즉 高麗는 箕子が 封함을 받은 뒤부터 德으로써 中國의 諸侯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儒學〉條에서는 「箕子所封朝鮮之境 習俗素稔八條之教云云」이라 하여 箕子が 封함을 받은 朝鮮땅에서는 八條의 가르침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箕子の 治績으로서 八條教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樂律〉條에서는 「箕子以商之裔而受周封於朝鮮 則革其鞞樂之陋者」라 하여, 기자가 商(殷)의 후예로서 朝鮮에 封해진 뒤 鞞樂의 누추함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상 箕子에 관한 기록을 종합해본다면, 箕子是 高麗의 조상으로서 周武王의 封함을 받아 조선에 와서 八條教를 가르쳐 禮義를 일으키고 樂律을 바꾸었으며, 中國의 諸侯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箕子像은 《史記》이래의 中國正史에 기재된 箕子관계 기사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담은 것은 없지만, 高麗의 조상을 箕子에서 구한 것은 徐兢자신의 주관적 해석이다. 더우기 《史記》에 보이는 「箕子不臣」說이나⁽⁵⁾ 《漢書》의 「箕子去之朝鮮」說⁽⁶⁾ 그리고 《尚書大傳》(漢 伏勝)의 「走之朝鮮」說⁽⁷⁾ 등을 무시해 버리고 「箕子周封」說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은 기자관계 기사의 一面만을 부각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中國에서 箕子の 周封說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실은 徐兢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唐末 五代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高麗太祖 16년에

(5) 《史記》에서는 殷本紀·周本紀 그리고 宋微子世家에서 箕子에 관한 말이 보인다.

○ 殷本紀：「紂…箕子懼 乃佯狂爲奴 紂又囚之…周武王…伐紂…釋箕子之囚」

○ 周本紀：「武王既克殷 後二年 問箕子殷所以亡…武王亦醜 故問以天道」

○ 宋微子世家：「箕子者 紂親戚也…武王既克殷 訪問箕子 武王曰…箕子對曰 花萼…天乃錫禹鴻範九等…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 其後 箕子朝周 過故殷墟…乃作麥秀之詩…」

(6) 《漢書》地理志,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仁賢之化 然東夷天性柔順 異於三方之外 故孔子悼道不行 設浮於海 欲居九夷有以也」

(7) 《尚書大傳》「書傳云 武王釋箕子之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箕子既受周之封 不得無臣禮 故於十三祀來朝 武王因其朝而問洪範…」

後唐이 王建을 高麗王으로 封하는 조칙에 「그대는 朱蒙의 啓土之禎과 箕子の 作蕃之跡을 이어받았다」는 요지의 글귀가 보인다.⁽⁸⁾ 中國은 이미 고려초기부터 箕子를 對高麗外交用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徐兢의 저같은 箕子서술도 宋나라 조정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진다.

(2) 衛滿朝鮮에 관한 서술

〈始封〉條에서는 箕子朝鮮 다음에 衛滿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歷周秦 至漢高祖十二年 燕人衛滿亡命 聚黨椎結 服役蠻夷 浸有朝鮮之地而王之…衛氏有國八十餘年

위만의 망명에 관한 기사는 中國正史에서 자료를 뽑은 것인데, 위 引用記事中 「服役蠻夷」 즉 蠻夷를 服役시켰다는 기사는 中國正史의 어느것에도 없는 것이다. 《史記》와 《漢書》·《後漢書》 등에는

聚黨千餘人 魁結蠻夷服而東走

라고 되어 있다. 즉 위만이 1,000여 명의 사람을 모아 상투를 짜고 蠻夷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도망갔다는 뜻이다. 「蠻夷를 服役시켰다」는 것과, 「蠻夷服을 입었다」는 것은 뜻이 전혀 다르다.

徐兢이 의도적으로 記事를 歪曲했는지, 아니면 轉寫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만관계 기사를 보다 中國人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왜냐하면, 《史記》·《漢書》·《後漢書》의 기록을 따르다면, 위만이 조선에 올 때 상투를 짜고 蠻夷服을 입었다는 사실은, 위만이 朝鮮人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까닭이다.⁽⁹⁾

(3) 高句麗에 관한 서술

〈始封〉條의 대부분은 高句麗에 관한 記事로 채워져 있어서 徐兢이 우리나라 역사체계 중에서 고구려의 위치를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高麗의 正統性을 高句麗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또 高句麗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당시 宋나라의 관심이 滿洲지방에 크게 쏠리고 있던 국제정세와도 관련이 없지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徐兢이 고려에 使臣으로 올 당시, 만주에는 遼나라가 거의 멸망단계에 있고 金나라가 새로 성립되

(8) 《高麗史》〈世家〉太祖 16年 春 3月 辛巳條 「唐遣王瓊楊昭業來冊王 詔曰…咨爾權知高麗國王事建身資雄勇…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 履箕子作蕃之跡宜乃惠和 俗厚知書…」

高麗초기의 箕子信仰에 관해서는 韓永愚,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韓國文化》3 (1982) 이 참고된다.

(9) 李丙癸박사는 위만이 조선에 올 때 상투를 틀고 蠻夷服을 입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여 衛滿은 朝鮮人이라고 주장하였다.

어 宋나라로서는 만주에서의 遼金교체에 비한 관심은 기울이고 있던 때였기 때문이다. 宋나라의 입장에서는 宋을 크게 압박하고 있던 遼를 견제할 수 있는 제3세력의 성장을 고대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만주사를 高麗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별로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믿었음직하다.

徐兢은 고구려의 出自를 扶餘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中國正史(後漢書)에 보이는 朱蒙의 건국설화를 먼저 소개한 다음, 高句麗 5部族의 명칭, 그리고 고구려땅에 漢의 玄菟郡이 세워지면서 漢의 朝服과 衣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다.⁽¹⁰⁾ 그리고 그 다음에는 太祖(宮), 新大王(伯周), 故國川王(伊夷模), 山上王(位宮), 故國原王(劉), 故國壤王(高安), 長壽王(璉), 嬰陽王(元), 高藏王(寶藏王), 劔牟岑·安舜에 이르기까지의 고구려의 전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서금이 高句麗역사를 기록하는데 이용한 자료는 唐나라 杜佑가 지은 《通典》인 것으로 보인다. 安舜에 이르기까지의 고구려 전역사를 기술한 것은 《通典》이 처음이다.⁽¹¹⁾ 뿐만 아

(10) 《高麗圖經》卷 1 始封「…衛氏有國八十餘年 先是夫餘王得河神之女 爲日所照 感孕而卵生 既長善射 俗稱善射朱蒙 因以名之 夫餘人 以其生異 謂之不祥 請除之 朱蒙懼逃焉 遇大水無梁 勢不能渡 因持弓擊水而呪之 魚鱉並浮 因乘以濟 至紇升骨城而居 自號曰高句麗 因以高爲氏而以高麗爲國 凡有五部 曰消奴部 曰絕奴部 曰順奴部 曰桂婁部 漢武帝滅朝鮮 以高麗爲縣 屬元(玄)菟郡 其君長賜之鼓吹伎人 常從郡 受朝服衣幘 縣令主其名籍 後稍驕 不復詣郡 於東界築小城 歲時受之 因名幘溝瀆 溝瀆者高麗名城也 於是始稱王焉…」

(11) 《通典》邊防門 東夷 高句麗條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高句麗 後漢朝貢云. 本出於夫餘. 先祖朱蒙. 朱蒙母河伯女爲夫餘王妻 爲日所照 遂有孕而生 及長名曰朱蒙 俗言善射也. 國人欲殺之 朱蒙棄夫餘 東南走渡普通水 至紇升骨城遂居焉. 號曰句麗. 以高爲氏. 及漢武滅朝鮮 以高句麗爲縣 屬玄菟郡 賜以衣幘朝服鼓吹 常從玄菟郡受之 後稍驕恣 不復詣郡 但於東界築小城 以受之 遂名此城爲幘溝瀆 溝瀆者句麗名城也. 王莽時 發句麗兵以伐匈奴 其人欲行 皆亡出塞爲寇盜. 莽更名高句麗王爲下句麗侯 於是貊人寇邊愈甚 光武建武八年 遣使朝貢 帝復其王號 其國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 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地方二千里 多大山深谷 無原澤 隨山谷而爲居 少田 業力作 不足以自資 其俗節於飲食 而好修宮室 以夫餘別種 而言語法則多同 而跪拜申一脚 行步皆走凡有五族 有消奴部·絕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其置官有相加·對盧·沛者·古離大加·主簿·優台·使者·卑衣·先人 其俗淫 皆潔淨 國中邑落男女每夜群聚爲倡樂 好祠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 大會 名曰寒盟 其國東有大穴號饒神 亦以十月迎而祭之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著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婚娶之禮 略無財幣 若受幣者 謂之賣婢 俗甚耻之 父母及夫喪 其服制同於華夏 兄弟則限以三月 兵器有甲弩弓箭鞞矟矛鋌 樂有五弦琴箏筆箏橫吹簫鼓之屬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 其馬皆小 便登山(本朱蒙所乘馬種. 即果下也). 畜有牛豕 豕多白色 其人性凶急有氣力 習戰鬥 好寇鈔 沃沮·東濊皆屬焉 又有小水名 句麗作國依水而居. (漢遼東郡西安平縣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之別種依小水作居. 因名之爲小水名). 出好弓 所爲鈔弓是也 至其王宮 生而開目能視 國入憎之 及長勇壯 和帝時 頻掠遼東·玄菟等郡 宮死 玄菟太守姚光上言 欲因其喪發兵擊之 尙書陳忠曰 宮前築黠先其能討 死而擊之 非義也 宜遣弔問 因責讓前罪 安帝從之 明年 宮子遂成還漢生口 詣玄菟降 詔曰 自今以後 不與縣官戰鬪 而自以親附 送生口者 皆與贖直繡人四十疋小口半之 自爾率服 東垂少事 其後王伯固 死 有二子 長曰拔奇 小曰伊夷模 拔奇不肖 國人共立 伊夷模爲王 自伯固時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獻帝建安中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 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遷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都於丸都山下 拔奇遂往 遼東有子留句麗國 古離加數位居是也 伊夷模死 子位宮立 以曾祖名宮 生能開目視 及長大果虜虐. (殆音凶)今王生亦能視 句麗呼相似爲位 似其祖故名之爲位宮 宮有勇力 便鞍馬 魏齊王正始三年 位宮寇西安平(在遼東) 五年 幽州刺史母丘

나라 《通典》의 高句麗에서와 《高麗圖經》의 그것은 거의 흡사하다.

원래 高句麗에 관한 기사는 《後漢書》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후한서》의 고구려기사는 東明王에서 시작하여 8代 新大王(伯固)에서 그치고 있다. 그 다음 《三國志》에서는 10代 山上王(位宮)까지, 《宋書》에서는 20代 長壽王(璉)만을, 《梁書》에서는 23代 安原王(延)까지, 《魏書》에서는 24代 陽原王(成)까지, 《周書》와 《隋書》에서는 25代 平原王(湯)까지, 《北史》에서는 25代 平原王과 隋煬帝의 고구려 원정까지, 《舊唐書》에서는 麗 唐전쟁에서 淵蓋蘇文과 男生·男建형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唐書》에서는 28代 寶藏王의 손자 寶元과 보장왕의 아들 德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각각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劔牟峯과 安舜의 高句麗 부흥운동까지 서술한 것은 《通典》이 처음인 것이다.

서금이 《고려도경》을 편찬함에 있어서 고구려 역사를 가장 최근까지 서술한 《通典》을 참고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通典》기사와 《高麗圖經》기사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아마 이것은 徐兢이 《通典》을 轉寫하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고려도경》을 간행하는 과정에 착오를 범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제 兩書의 기사를 비교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을 조목별로 찾아보기로 한다.

① 16代 故國原王(劉)에 관한 서술부분에 착오가 있다. 먼저 《高麗圖經》의 이에 관한 기사를 옮겨본다.

位宮五世孫劉 晉永嘉中 與遼西鮮卑慕容廆鄰 廆不能制 康帝建元初 廆于靛帥師伐之 大敗 後爲百濟所滅

이 記事대로 한다면 故國原王(劉, 331~371)은 晉 永嘉(307~312)중에 遼西의 鮮卑와 이웃하였고, 晉 康帝建元(343~344) 초에 慕容靛과 싸워 大敗하였고, 뒤에 百濟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記事中 故國原王이 晉 永嘉중에 鮮卑와 이웃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때는 故國原王의 前王인 美川王(乙弗利, 300~331)이 在位했던 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北史》高句麗傳에는 다음과 같은 美川王에 관한 記事가 보인다.

晉永嘉之亂 鮮卑慕容廆 據昌黎大棘城…位宮玄孫乙弗利(美川王—필자주) 頻寇遼東 廆不能制

儉 將萬人出玄菟討之 戰於沸流 位宮敗走 儉追至頽峴 懸車束馬 登丸都山 屠其所都 斬首虜萬餘級 六年 母丘儉復討之 位宮輕將諸加 奔沃沮 儉使王順追之 統沃沮千餘里 到肅慎南界 刻石紀功 又刊丸都山 銘不耐城而還「至位宮五棄孫劔 管康帝建元初 慕容靛(音見) 率兵伐之 大敗 單馬奔走 靛乘勝追至丸都 焚其宮室 掠男女五萬餘口以歸 劔後爲百濟所殺 其後慕容寶以句麗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至孫高璉 東晉安帝義熙中 遣長史高翼 獻楮白馬 以璉爲營州諸軍事高麗王樂浪郡公 宋元嘉中又獻馬八百疋 自東晉·宋至于齊·梁·後魏·後周 其主皆受南北兩朝封爵 分遣貢使 初後魏時 置諸國使邸 齊使第一 高麗次之 南齊武帝永明中…」

美川王은 晉 永嘉연간에 在位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사실에 맞는다. 한편, 《通典》에는 故國原王(劉)에 관한 기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至位宮五葉孫釗(劉) 晉康帝建元初 慕容皝 率兵伐之 大敗…釗後爲百濟所殺

즉 이 記事中에는 故國原王이 晉 永嘉中에 무엇을 했다는 것은 없고, 晉 康帝建元初에 慕容皝과 싸워 大敗하고 뒤에 百濟에게 죽음을 당했다고만 쓰여 있다. 이 기사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 따라서 《高麗圖經》은 《通典》에 없는 기사를 《北史》에서 베끼다가 착오를 일으켜, 美川王에 관한 사건을 故國原王에 관한 사건으로 誤記하고 말았다.

② 다음에 26代 嬰陽王(元)에 관한 서술에서도 착오가 보인다. 《高麗圖經》에는

璉七世孫元 隋文帝時 率靺鞨 寇遼東

이라고 하여 長壽王(璉)의 7世孫 嬰陽王(元)이 隋文帝때 말갈병을 이끌고 遼東을 침공하였다고 하였으나, 《通典》에는

白璉七葉至元 隋文帝時 率靺鞨之衆 萬餘騎 寇遼西…

이라 하여 嬰陽王이 隋文帝때 말갈의 무리 단여 명을 이끌고 遼西를 침공했다고 되어 있다. 遼東과 遼西는 거리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만큼 이러한 착오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徐兢의 우연한 失手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③ 다음에는 長壽王(璉)이 義熙中에 長史 孫翼을 보내어 赭白馬를 바치고 榮州牧으로서 高麗王樂浪郡公이 되었다는 기록에도 착오가 보인다. 《高麗圖經》과 《通典》의 기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圖經〕(高)安孫璉蓋熙中 遣長史孫翼 獻赭白馬 以爲榮州牧・高麗王樂浪君公

〔通典〕至孫高璉 東晉安帝義熙中 遣長史高翼 獻赭白馬 以璉爲營州諸軍事高麗王樂浪郡公

이 두 記事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高麗圖經》에서 孫翼으로 되어 있는 人物이 《通典》에서는 高翼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④ 끝으로, 《高麗圖經》에서 劍牟岑에 관해 서술하면서

其酋長有劍牟岑者 立藏(寶藏王一필자)外孫舜爲王

이라 하여 劍牟岑이 寶藏王의 外孫 舜을 王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通典》에서는 舜을 安舜이라고 쓰고 있다. 이 역시 安舜이 사실에 맞는 것이다.

(4) 渤海에 관한 서술

《高麗圖經》의 渤海에 관한 기사는 高句麗가 멸망하여 安東都護府가 平壤城에 세워지고 군대로써 鎮守하였다고 한 뒤에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武后遣將 擊殺其王乞昆羽而立其王 乞仲象亦病死 仲象子祚榮立 因有其衆四十萬 據于挹婁 臣于唐 中宗時 乃置忽汗州 以祚榮爲都督渤海君王 其後遂號渤海

즉 唐나라 則天武后가 장군을 보내 고구려땅에서 王노릇하고 있던 乞昆羽를 죽이고 乞仲象을 王으로 삼았는데, 그마져 病死하자 仲象의 아들 祚榮이 王이 되었다가 40만의 무리를 이끌고 把數에 응거하여 唐에 臣屬했으며, 中宗때에는 忽汗州를 설치하고 祚榮으로 하여금 都督渤海君王으로 삼았는데, 그뒤에 渤海라고 국호를 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원래 渤海에 관해서는 中國正史중 《舊唐書》와 《唐書》, 그리고 《新五代史》(歐陽修)에 列傳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高麗圖經》의 발해서술은 이들 諸史中 《新五代史》四夷傳의 기사에 가장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잠깐 北宋代 歐陽修가 撰한 《新五代史》四夷傳中 渤海傳의 一部를 옮겨본다.

渤海本號靺鞨 高麗之別種也 唐高宗滅高麗 徙其人 散處中國 置安東都護府於平壤 以統治之 武后時契丹攻北邊 高麗別種大乞乞仲象與靺鞨酋長乞四比羽 走遼東 分王高麗故地 武后遣將擊殺乞四比羽而乞乞仲象 亦病死 仲象子祚榮立 因并有比羽之衆 其衆四十萬人 據挹婁 臣于唐 至中宗時 置忽汗州 以祚榮爲都督 封渤海郡王 其後世遂號渤海……

이 기록과 《高麗圖經》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보인다.

첫째, 人名의 표기가 서로 다르다. 《高麗圖經》의 乞昆羽가 이곳에서는 乞四比羽로 되어 있다. 그런데 《唐書》에도 똑같이 乞四比羽로 되어 있어서, 《高麗圖經》의 乞昆羽는 乞四比羽의 誤記인 것이 확실하다. 다음에 大祚榮의 아버지를 《高麗圖經》에서는 乞仲象이라 하였으나, 《新五代史》에서는 大乞乞仲象이라고 달리 표기하고 있다. 또 《高麗圖經》에서는 乞四比羽와 乞仲象의 종족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新五代史》에서는 前者를 靺鞨酋長으로, 乞仲象을 高麗別種으로 각각 구별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兩書가 서로 비슷하지만, 《新五代史》의 기사가 좀더 상세하여 이를 《高麗圖經》에서 압축한 것으로 보인다.

(5) 高麗건국에 관한 서술

〈始封〉條의 말미에는 渤海建國을 서술한 다음에 劍牟岑의 高句麗 부흥운동을 설명하고, 그 뒤에 이어서 高麗 건국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都護府既屢遷 舊城頗入新羅 遺民散奔突厥靺鞨 高氏既絕久而稍後 至唐末 遂王其國 後唐同光元年遣使來朝 國王姓氏 史失不載 長興二年 王建權知國事 遣使入貢 遂受爵 以有國云

이 記事에서 먼저 注目되는 것은 統一新羅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安東都護府가 여러번 옮겨가는 과정에 고구려의 舊域이 상당수 新羅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간단히 언급하고, 다시 唐末에 이르러 高氏(고구려 유민)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後唐 同光元年(莊宗, 923)에 使臣을 보내 來朝했는데 國王의 姓氏는 歷史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여기서 唐末에 다시 高氏가 나라를 세웠다고 한 것은 아마 弓裔의 泰封國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리고 同光元年에 使臣을 보냈다고 하고, 그때의 國王의 姓氏는 史失不載라고 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同光元年是 太祖(王建)6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그때의 國王은 王建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王建이 使臣을 보내 入夷하고 爵位를 받은 것이 長興 2년(931)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長興 4년이다. 이때는 太祖 16년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高麗圖經》의 高麗建國과정에 또한 서술이 매우 조잡하게 된 것은 高麗側 記錄을 참고하지 않고, 《新五代史》四夷傳의 高麗傳을 참고한데 원인이 있다. 이제 《新五代史》高麗傳의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 本扶餘人之別種也…當唐之末 其王姓高氏 同光元年 遣使廣評侍郎韓申一 副使春部少卿朴岩來而其國主姓名史失不紀 至長興三年 權知國事建遣使者來

즉 여기에서도 同光元년에 使臣을 보면 고려국왕의 姓名이 「史失不紀」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기사를 《高麗圖經》에서 그대로 轉寫한 관계로 「史失不紀」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6) 高麗國王의 世系에 관한 서술

《高麗圖經》의 第2卷 〈世次〉와 〈王氏〉條에서는 太祖 王建으로부터 仁宗에 이르는 17代王의 世系를 적고 있다.

먼저, 太祖 王建에 대해서는 앞서 〈始封〉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遣使入貢한 사실을 소개한 바 있거니와, 〈王氏〉條에서는 이를 더 부연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王氏之先 蓋高麗大族也 當高氏政衰 國人以建賢 遂共立爲君長 後唐長興三年 遂自稱權知國事 請命于明宗 乃拜建元菟州都督充大義軍使封高麗王 晉開運二年 建卒 子武立

즉 王建의 조상은 高(句)麗의 大族으로서 高氏(고구려)의 정치가 쇠하자 國人들이 그를 현명하게 생각하여 君長으로 共立하였는데 後唐 長興 3년(932)에 스스로 權知國事를 칭하면서 後唐 明宗에게 冊命을 요청하였으므로, 明宗이 그에게 元(玄)菟州都督·大義軍使·高麗國王의 직함을 제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王建은 開運 2년(945)에 죽고 그의 아들 武(惠宗)가 즉위하였다는 것이다.

이 記事는 高麗측 자료에 의거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역시 《新五代史》의 高麗傳의 기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至長興三年 權知國事王建 遣使者來 明宗乃拜建玄菟州都督 充大義軍使 封高麗國王 建高麗大族也 開運二年 建卒 子武立

두 기사를 서로 비교해 보면, 서술의 순서만 다를 뿐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王建의 出自와 封爵, 그리고 卒年에 관한 기사는 事實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첫째로 王建의 조상을 高(句)麗의 大族이라고 한 것도 근거가 박약할 뿐 아니라, 그가 國王으로 추대된 것이 「高氏政變」 즉 고구려말기처럼 서술된 것도 사실에 어긋난다. 統一新羅의 존재를 거의 무시하고 있는 까닭에 왕건의 出自나 즉위연대를 모두 高句麗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王建의 卒年을 開運 2년(945)이라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그의 卒年은 그보다 2년 앞선 天福 6년(943)인 까닭이다.

세째로, 王建이 後唐明宗으로부터 封爵을 받은 것이 長興 3년(932)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다음해인 長興 4년(933)이 사실에 맞는다. 《新五代史》의 잘못된 기사를 徐兢이 그대로 믿어서 《高麗圖經》에 전제한 데서 이러한 착오가 생겨난 것이다. 또 왕건의 卒年이 잘못 기록되었기 때문에 惠宗이 즉위한 年代도 사실은 天福 6년(943)인데 이를 開運 2년(945)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

다음에 〈王氏〉條에서는 「漢乾祐末 武卒 子昭立」이라고 하여 後漢 乾祐말년에 武(惠宗)가 죽고 그의 아들 昭(光宗)가 즉위하였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昭(光宗)는 武(惠宗)의 아들이 아니라 王建의 아들인 까닭이다. 그리고 武 다음에 昭가 즉위한 것이 아니라 堯(定宗)가 즉위했는데, 이 사실을 누락시키고 있다. 또한 昭(光宗)의 즉위연대를 乾祐末이라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昭의 즉위연대는 乾祐 2년(945)이기 때문이다. 《新五代史》에서는 「乾祐四年 武卒 子昭立」이라하여 昭의 즉위연대를 乾祐 4년(951)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잘못이다. 徐兢은 이 기사를 따라 乾祐末에 昭가 즉위했다고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 「開寶九年 昭卒 子佑立」이라 하여 宋太祖 開寶 9년(976)에 昭가 죽고 그의 아들 佑(景宗)가 즉위하였다고 한 것은, 開寶 8년(975)을 잘못 적은 것이다.

景宗 다음에 「太平興國土年 佑卒 弟治上章乞襲」이라고 하여 太平興國 7년(982)에 佑가 죽고 그의 동생 治(成宗)가 襲封을 上章했다는 것은 사실에 맞는다. 《新五代史》에는 昭(光宗)의 즉위에 관한 서술에서 그치고 있는 까닭에, 景宗 이후의 역사는 《新五代史》아닌 다른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成宗 다음 穆宗의 즉위에 관해서는 「治卒 弟誦立」이라 하여 治가 죽고 그의 아우 誦(穆宗)이 즉위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誦은 治(成宗)의 아우가 아니라 景宗(佑)의 아들인데, 이를 착각한 것이다.

穆宗 다음의 顯宗의 즉위에 대해서는 「大中祥符七年 誦卒 弟詢 權知國事云云」이라 하여

大中祥符 7년(1014)에 穆宗이 죽고 그의 아우 詢(顯宗)이 權知國事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착오이다. 顯宗은 穆宗의 아우가 아니라 成宗의 아우이며, 穆宗의 叔父가 된다. 또 顯宗의 즉위연대를 大中祥符 7년이라 한 것은 大中祥符 2년(1009)의 착오이다.

顯宗 다음의 德宗·靖宗·文宗에 이르는 王位 계승관계 부분에서도 큰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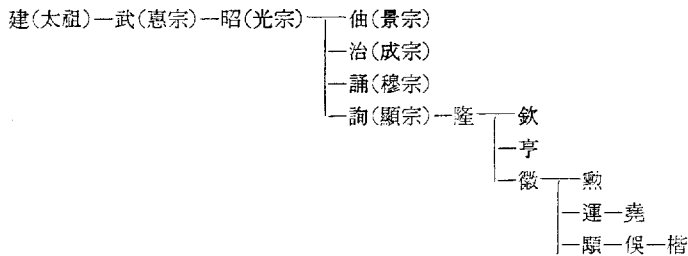
隆卒 子隆立…隆卒 私諡曰正 子德王欽 欽弟穆王亨云云

이라 하여 詢(顯宗)이 죽고 그의 아들 隆이 즉위하였으며, 그는 죽은 뒤에 私諡를 正이라 하고, 그의 아들이 德王 欽이라 하였다 하나, 詢(顯宗)의 아들은 欽(德宗)이지 隆이 아니다. 隆이라는 人名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欽의 아우가 穆王 亨이라 한 것도 잘못이다. 亨은 靖宗이지 穆王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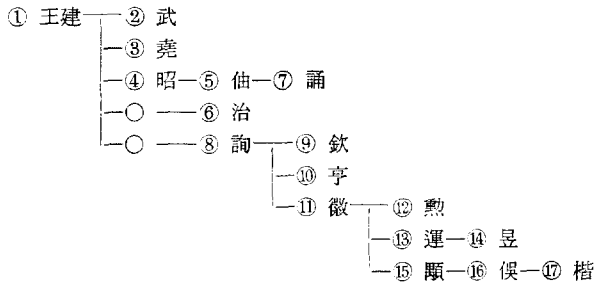
靖宗(亨) 다음에 그의 아우 徽(文宗)가 즉위했다고 한 것은 사실에 맞는다. 또 徽(文宗) 다음에 世子 勳(順宗)이 즉위하고, 이어 勳의 아우 運(宣宗)이 즉위했다고 한 것도 사실에 맞는다.

宣宗(運)에서 獻宗(昱)·肅宗(熙 혹은 頤)·睿宗(悞)·仁宗(楷)에 이르는 왕위승습에 관한 서술에도 약간의 착오가 있다. 즉 運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堯가 즉위했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堯가 아니라 昱(獻宗)이 즉위하였다. 堯는 第五代 定宗의 이름이다.

한편 《高麗圖經》의 〈王氏〉條 다음에 〈世系〉條에서는 王建에서부터 楷(仁宗)에 이르는 17대 왕의 世系를 表로 작성하고 있는 바, 그 表는 다음과 같다.



위 表는 앞의 〈王氏〉條에서 서술한 내용을 도표로 작성한 것이므로, 〈王氏〉條의 서술내용에 착오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表에도 똑같은 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잘못된 世系表를 만들었기 때문에 〈王氏〉條의 말미에서 徐兢은 王建에서 仁宗에 이르는 世代를 통틀어 「王氏有國 九世 凡十七人 合一百九十三年云」이라고 하였으나, 「王氏有國九世」는 「王氏有國七世」로 바꾸는 것이 사실에 맞는다. 이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世系表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餘 言

지금까지 《高麗圖經》에 그려진 우리나라 역사체계의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우선 작자 徐兢의 한국사 이해는 철저히 中國側 文獻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측 문헌은 거의 참고한 흔적이 없다. 中國측 문헌에서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킨 대목이 매우 많은 것은 《高麗圖經》을 자료로 이용할 경우에 특별히 주의가 요망되는 점이다.

작자 서경이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시종일관 中國의 諸侯국가라는 名分 위에서 이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이 주목적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中國人의 전통적인 四夷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책에서 구성되고 있는 한국사체계가 箕子朝鮮과 高句麗를 골간으로 하여 이를 高麗王朝의 역사적 정통성으로 인정하려는 듯한 성격을 가진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高麗圖經》이 편찬된 시기는 金富軾의 《三國史記》가 편찬되기 22년전에 해당한다. 《三國史記》이전에 「舊三國史」가 고려초에 편찬된 사실이 있고, 「朝代記」 같은 발해계통의 史書도 있었던 듯하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전하지 않는다.⁽¹²⁾ 따라서 《三國史記》이전의 史書들이 한국사체계를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다음 몇가지 사실들을 고려할 때, 고려는 箕子朝鮮과 高句麗의 계승자라는 역사의식을 스스로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高麗圖經》이 편찬되기 21년이 앞선 肅宗대에 平壤에 箕子祠堂이 세워지고 국가에서 제사를 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敎化和 禮儀는 箕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국가에서 箕子를 숭배하게 된 기본이유였다. 箕子が 中國의 諸侯였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肅宗대의 기자숭배는 中國人이 그려놓은 箕子像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高句麗때부터 土俗信仰으로 내려오던 평양지방의 기자신앙을 부활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¹³⁾ 다시 말하자면, 고려측의 箕子신앙은 어디까지나 高句麗文化전통의

(12) 韓永愚, <17세기의 反母華의 道家史學의 成長> 《韓國學報》 1 참고.

(13) 註(8)의 韓永愚論文 참고.

일부로서 계승되고 있는 것이지, 中國과의 事大外交의 상징으로서 의식된 것은 아니었다.

다음에, 고려국가가 성립초기부터 高句麗 계승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① 國號를 高麗로 하였든가, ② 高句麗舊疆 수복을 목표로 北進政策과 西京 부흥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였다는 사실, ③ 발해유민을 적극 포섭하고 발해를 멸망시킨 契丹을 매우 적대시하였다는 사실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箕子 숭배조차도 실은 高句麗 계승의식의 한 소산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려초기의 歷史 계승의식을 대체로 위와 같이 이해할 때, 《高麗圖經》의 한국사 체계는 고려측의 그것과도 기본적으로는 합치되는 점이 많다고 하겠다. 다만, 서궁이 그려낸 箕子는 中國의 諸侯라는 사실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고려도경》보다 조금 뒤늦게 편찬된 《三國史記》의 韓國史體系는 《고려도경》이나 혹은 고려측의 지금까지의 역사계승의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는 高麗王朝의 正統을 신라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新羅의 건국이 三國中 가장 앞선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列傳의 人物이 대부분 新羅人으로 구성되어 있고, 三國의 政治·文化를 평가함에 있어서 新羅를 가장 道德的으로 앞선 나라로 이해하고 있다.

箕子和 衛滿에 관해서는 年表와 高句麗本記 말미의 史論에서만 잠깐 언급하고 있어서 韓國史體系에 적극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年表의 序文에 의하면, 「海東有國家久矣 自箕子受封於周室 衛滿僭號於漢初 年代綿邈 文字疎略 固莫得而詳焉」이라 하여 箕子와 衛滿의 朝鮮이 있었지만 年代가 너무 오래고 文字가 소략하여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기자와 위만에 관한 자료는 결코 소략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굳이 무시한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경우, 新羅의 정치적 선진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도 추측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三國史記》의 韓國史體系가 《高麗圖經》보다도 歷史의 上限을 내려잡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좋은 대조를 보인다고 하겠다.